

全北日報

## 으랏차차...정읍 칠보고 씨름부, 창단 2년만에 전국 대회 입상

윤임장훈 | ① 입력 2025-03-17 09:48 | ① 수정 2025-03-17 11:17



칠보고등학교 씨름부 조명신 감독과 선수들이 상장과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했다. 사진제공=정읍교육지원청

지난 2023년 3월 창단된 정읍 칠보고등학교(교장 최기석) 씨름부가 전국 대회에서 입상하며 향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칠보고 씨름부는 지난 12일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제55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고등부 단체전 3위, 개인전 역사급(100kg이하)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개인전 역사급에 출전한 3학년 이현우 선수는 결승전에서 대구능인고의 전명건 선수와 맞붙어 1:1 초박빙 경쟁에서 1:2로 아쉽게 패하며 2위에 올라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명신 감독은 "칠보초~칠보중~칠보고 씨름부가 이어지며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